과학기술정보통신부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	2026.9.14.(월) 14:00 (2026. 9. 15.(화) 조간)	배포	2026.9.14.(월) 09:00

과기정통부, 지역과 함께 스마트빌리지 확산체계 가동
전국 시·도 참여 「스마트빌리지 시·도협의체」 출범

- 지역별 우수서비스 확산과 구축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
- 우수모델·표준서비스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한 스마트빌리지 발전방안 모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9월 14일 전국 광역지자체와 「스마트빌리지 시·도협의체」 출범식을 개최하고,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지역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.

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,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. 2023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되며, 지자체 주도로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발굴하고, AI·IoT 등 디지털 기술을 지역 현장에 적용해 농·어업 등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, 생활안전·돌봄·교육 등 주민 생활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.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고,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. 특히, 기존의 경로당 내에 ICT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'스마트 경로당'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표 사례 중 하나이다.

과기정통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추진 8년 차를 맞이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, 개별 지역의 성공을 넘어 지역의 우수한 경험과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검증된 서비스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시·도협의체를 구성했다.

시·도협의체는 앞으로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. 주요 안건은 ▲스마트빌리지

사업 추진 방향 및 제도 개선 ▲지역별 우수사례와 구축·운영 경험 공유 ▲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서비스 발굴 ▲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.

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국장은 “지자체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창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”며, “스마트빌리지 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와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“특히 이번 시·도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와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,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등 과기정통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사회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지현 (044-202-6130)
		담당자	사무관	황지윤 (044-202-6134)
		담당자	주무관	지현주 (044-202-6139)
전담 기관	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융합확산팀	책임자	팀 장	박문우 (053-230-1421)
		담당자	책 임	권선희 (053-230-1425)
		담당자	책 임	이은숙 (053-230-1463)

대체불가 대한민국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